



〈성 정하상 바오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4)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2ㄴ-2ㄷ-3.4-5.6  
(◎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ㄴ-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 루카 9,23-26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때에 <sup>23</sup>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sup>24</sup>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sup>25</sup>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sup>26</sup>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몇몇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였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다른 나라들의 교회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전통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결국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신해 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일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위를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복음 묵상

루카 복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일상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날마다’라는 말마디가 추가되는 까닭입니다. 특정한 순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실제로는 십자가와 무관한 경우가 많지요. 삶의 처세를 위한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엮는 것은, 꽤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께서 위하신 이웃을 향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다고 수없이 듣고 들어 온 신앙인들에게, 십자가는 낯선 이들과의 연대, 불편한 사람과의 동행,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을 겸한 공동체적 삶의 지렛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뜻이 달라도, 부족하고 어눌하더라도 제 이웃을 사랑하겠노라는 다짐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점검해 보아야 할 삶의 기본입니다.

일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은 세상 처음부터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원시 시대든, 인공 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할 것 같은 미래의 어느 시간이든 사는 것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다만, 시대의 순간순간 함께하는 삶의 이질성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함께 답할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와, 제 삶에만 천착하여 다른 삶에 대한 질문은커녕 제 삶의 의미마저 속세의 천박한 유혹에 저당 잡힌 이들의 간극은 천국과 지옥보다 더 큰 것이겠지요. 십자가의 삶은 타인의 삶 안에서 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순교자들은 큰 선물을 미리 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대단하다. 그들의 순교를 감히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정도로만 오늘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방증입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부러워해야겠습니다. 부러워서 나도 얼른 그 선물을 움켜쥐고 싶어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설레는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른 이웃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 무명의 순교자 앞에

이해인 수녀

오래전에 흠속에 묻힌  
당신의 눈물은  
이제 내게 와서  
살아 있는 꽃이 됩니다.

당신이 바라보던 강산과 하늘을  
나도 바라보며 서 있는 땅  
당신이 믿고 바라고 사랑하던 입을  
나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민들레가 되고 싶은 이 땅에서  
나도 당신처럼 남몰래 죽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박해의 칼 아래 피 흘리며 부서진  
당신들의 큰 사랑과 고통이  
내 안에 서서히 가시로 박혀  
나의 삶은 아플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닮지 못한 부끄러움에  
끝없는 몸살을 앓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았고  
영원의 한 끝을 만졌으나  
아직도 자주 흔들리는 나를  
조용히 붙들어 주십시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거룩한 순교자여!  
오래전에 흠속에 묻힌 당신의 침묵은  
이제 내게 와서  
살아 있는 말이 됩니다.

## 묵상

### 순교자의 기도

주님!  
제가 매일의 삶에서  
칼끝에 서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저를 잊지 말아 주소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임의준 신부, 가톨릭신문〉

〈바로말콘텐츠〉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도 18,9 -10

Do not be afraid.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for I am with you. Acts 18,9-10

## 1 조상들을 위한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월 1일(목) 저녁 8시 : 미사 참석은 **선착순 100명**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 미사는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 연미사 신청 : 사무실(703-968-3010)

## 2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에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4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5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6 유아세례 안내



-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

- 가톨릭 신문 미주판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9월 20일자를 끝으로 폐간됩니다. 구독료가 남은 구독자들은 아래와 같이 환급 금액을 알려드리니 체크에 적을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ST.PAUL CHUNG CATHOLIC CHURCH (#1937)
- LAST DATE : 10/31/2020
- Refund Amount(2.55X4 weeks) : **\$10.20**
- 이메일 : [ctimesusa@gmail.com](mailto:ctimesusa@gmail.com)
- 전화번호 : 323-351-7788

## 8 2020-2021 주일학교 등록 안내

- 대상: 유치부 - 12학년(K - 12<sup>th</sup> grade)
- 등록비: 한 자녀/한 가정 \$50, 두 자녀/한 가정 \$90, 세 자녀 이상/한 가정 \$130
- 등록 방법: **본당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 등록 기간: **9월 30일**까지
- 수업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수업 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수업 (상황 개선 시엔 대면 수업 예정)
- \* 온라인 등록 문의: 윤정 보일 CCD 교감  
 (703)371-3589 주일학교  
 [spc15.re.admyc@gmail.com](mailto:spc15.re.admyc@gmail.com)

##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5주 주간: 바룩 1-3, 2베드 1-2**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2020년 9월 13일(연중 제24주일)

주일헌금 .....	\$2,284.00
2차헌금 .....	\$845.00
교무금 .....	\$11,3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3,100.00
감사헌금 .....	\$560.00
<b>합계 .....</b>	<b>\$18,159.00</b>

-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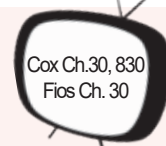
9월 16일(수) 오전 6:15-6:45 | 9월 19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이집트문명과 이스라엘'

※ [www.dc1310.com](http://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17일(목) 오후 5:00-6:00  
 9월 18일(금) 저녁 8:00-9:00  
 9월 20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겨안기 4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신리성지